

책의 평화 생명의 평화
도석 스님 지음 | 열린아트 | 9천원

日 원폭 피해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본 원폭피해 한국인을 위한 추모사업을 펼치는 (사)한민족 희생자 추모사업회 이사장이자 중앙자수공예가인 도석 스님(사진)이 생평 평화에 관한 에세이 <책의 평화 생명의 평화>를 펴냈다.



도석 스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판 한판 수 놓은 작품을 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로 억울하게 죽어간 7만여명의 한국인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와 추모사업을 벌여왔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한민족의 입장에서 원폭을 재조명하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전 시판'과 책의 위령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청소년교육수련관' 건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책의 서문에서 스님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죽음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책의 평화, 생명의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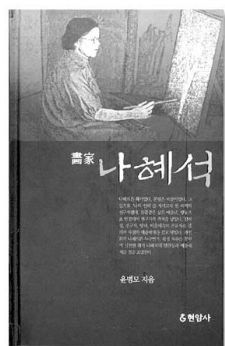
동양자수를 배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스님의 삶은 스물 아홉 살에 당한 교통사고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하반신 마비와 거듭된 수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병원에서 한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뒤늦은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0여년이 흘러,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우연히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을 둘러보게 된 스님은 원폭 투하로 우리나라 국민이 겪은 피해를 듣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와 추모전 시판·청소년교육수련관 건립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불가의 공덕 회향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선물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덕 회향 정신은 자기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의 평화를 이뤄내는 훌륭한 씨앗이 됩니다."

책에서는 스님의 개인사와 평화를 위해 걸여온 여정을 풀어놓아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원폭 피해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나혜석 예술세계 집중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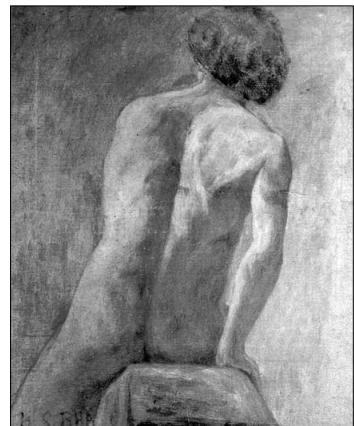
화가 나혜석
윤범모 지음 | 현암사 | 1만5천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1896~1948). 그러나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화가'로서 보다는 '진보적 여성 운동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조(貞操)는 오직 취미'라는 정조론 발표와 남편과의 세계일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불륜과 이혼 후 지면을 통해 발표한 '이혼고백서' 등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파격적 행보를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이 골목 많았던 그의 삶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뒤덮은 채 대중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윤범모 교수(경원대·나혜석기념사업회 운영이사)는 최근 펴낸 <화가 나혜석>을 통해 나혜석 예술세계의 원형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대중적 '스타' 입애에 학술적 접근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혜석의 것이라고 전해오는 30~40점 유희작품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이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화가 나혜석'의 삶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칭(傳稱) 나혜석 작품'에 대한 위차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화창시절의 학적부와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비롯해 그의 초기 미술세계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소개했는데, 1919년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만평 형식의 소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연말연시의 세시풍속을 그린 소묘에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한 것으로, 윤 교수는 이 만평을 통해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작가적 예술세계의 토대를 살피고 있다. 즉, 밥상 차리기와 다듬이질, 바느질 등 여성의 가사노동을 그림으로써,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나혜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나부'. 윤범모 교수는 이 작품이 구미 게이이치로의 '습작'의 모사화라는 의혹을 비롯해 나혜석 작품 진위여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희 30여점 수준 천차만별 진위 여부 종합적 검증 시도 대표작 '나부' 모사화 가능성 제기

뒤에는 설 세 없는 여성의 노동이 깔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나혜석이 '조선미화'에 출품한 '농가'(1922년 출품) '봉화산'(1923년 입상) '가을의 정원'(1924년 입상) 등의 작품과 평단의 비평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고 있다. 나혜석에 관한 글 한 줄, 삼행 한 장까지도 꼼꼼히 수집해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본 윤 교수는 미술 평단에 '전칭 작품'에 대한 진위 가능성을 묻는다. 대표작으로 알려진 '나부(樓)'의 경우 일본화가 구미 게이이치로의 '습작'의 모사화 가능성을, <한국근대회

화선집>에 실린 '농촌 풍경'과 '무희' 등은 전작(前作)들과의 판이한 표현 기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만인이 불행했다'는 단편적인 평가 대신, 불교적 세계관을 접하고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았던 '무애행(無碍行)'으로 이해한 점도 나혜석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그가 세상을 뜬 지 57년, 아직도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적상 영생(永生)하고 있는 나혜석은 자신의 작품 등, 대표작으로 알려진 '나부(樓)'의 경우 일본화가 구미 게이이치로의 '습작'의 모사화 가능성을, <한국근대회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당의 원리
명덕 지음
정신세계사
2만원

"조상 묘를 명당에 써야 집안이 잘 돼."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운을 가능 짓는 근거의 하나로 '명당(明堂)'을 든다. 그렇다면 명당이란 과연 무엇일까? 최근 <명당의 원리>를 펴낸 김덕(53, 필명 덕원)씨는 "명당이란 땅속으로 흐르는 기맥(氣脈)이 '땅기' 중에 있는 기(外氣)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땅의 숨구

땅의 숨결 느껴 보세요

멍"이라고 정의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풍수지리를 잡술(雜術)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고, 명당이 없다는 등의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명당의 형성 원리를 밝히고 기존의 잘못된 풍수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은 이가 전국의 사찰을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각 사찰의 명당과 명당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김씨가 명당으로 꼽은 사찰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용주사, 고창 선운사 등이다. "천년고찰들은 예외 없이 명당에 자

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스님들이 심안(心眼)을 깨치고 사심 없이 평속 에너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명당에 서면 신도들이 자연과 순화되는 마음을 갖게 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때문에 김씨는 최근 전통적인 풍수 사상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대형불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김씨는 풍수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알고 이를 인간에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았던 우리 정신세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다음 저서들이 기대되는 이유다.

언리를 알고 보니 한자 공부 재밌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을 지배해 온 한자(漢字). 그러나 '한글시대'들에게 한자는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불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역(漢譯) 경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 대부분의 경전이 한자로 이뤄져 있지만, 원전(原典)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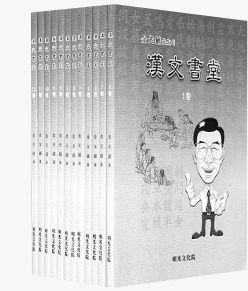
40여 년간 한문교육에 힘써 온 한학자 김광식(63·명광문화원장)씨는 무조건적인 암기와 지루한 설명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는 한자 학습법을 제시한다. 바로 2천3백여 자의 한자와 고사성어, 1만1천여 자의 어휘를 풀이한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이 그것이다.

김 원장은 "반만년 동안 우리 겨레는 한자를 통해 문자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예의범절과 충효사상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최근 주먹구구식으로 한자교육이 이뤄짐으로써 한자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일반인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 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의 뜻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면 글자는 절로 외워진다는 것이 김 원장의 지론이다.

일례로, '불(佛)'자에 대한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음은 불, 훈은 마음·부처로 새기며, 해석은 '사람 같으면서 사람이 아닌 것이 부처이므로 마음이 부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가(佛家)와 불국사(佛國寺) 불보(佛寶) 등의 용어 해석을 덧붙여 글자의 이해를 돕는 식이다.

책에서는 상형·회의·형성론 등 한자의 구성원리인 육서(六書)와 서체의 변천과정, 약자 및 속자 해설 등을 설명하고, 부수와 한자, 고사성어를 차례로 풀이한다. 1권에서는 214개의 부수를 일일이 풀이했는데, 이는 '샘의 기본이 구구단이다, 한문의 기본은 부수'이기 때문이라고. 판매문의 (02)732-1520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
김광식 지음
명광문화원
전 12권 | 각권 1만5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인된 전문영성! 전각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문계현 신사님이 역저한 <여로보인 전문영성> 전3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빠짐없이 펴내고 총하여 공인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



귀의삼보하옵고 이번 석문사에서 정원군 군민과 함께 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석문사는 청원 남이면 불교 사찰로서 자비실천의 불교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정원군의 특성을 살리고 관과 민이 함께 지역의 문화행사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사상과 효 실천이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열리는 시간: 신명품물예술단의 전통의 향연으로 열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 흥겨운 시간: 트롯과 가요를 통하여 출연자와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 ☞ 참석하신 어른신에게 석문사 신도회에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성공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및 음료 떡 주유 다과 등)
- ☞ 출연진 신명품물예술단 스페셜 공연 (단장 외 7명), 민요 - 강선자 외 2명, 무용 - 정유진,이연경, 덕송초등학교 사물놀이단

■ 행사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 소 : 남이 초등학교
- 주 최 : 호국불교 효혜중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주최 협조 011-9607-2199
- 후 원 :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청원군노인회, 석문사 신도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대전충북 지사장 011-9422-8453 혜철스님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정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인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전화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